

울산항 9개 단체 “항만공사 통합, 자율성 압살 독단적 정책”

“해운항만 산업 본질적 특성 무시
개별 항만의 건전재정 구조 유지
통합 시 관리비 절감 등 이득 미미”

정부가 울산·부산·인천·여수광양 등 전국 4대 항만공사(PA)의 통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울산항 관련 9개 단체가 “항만의 자율성을 압살하는 독단적 정책”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항발전협의회, 울산항만물류협회, 울산항선사대리점협의회, 한국해운조합 울산지부, 울산항도선사회, 울산항탱크터미널협의회, 울산항업협회, 울산항운노동조합,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 등 9개 단체는 13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최근 정부 일각에서 제기된 울산·부산·인천·여수광양항만공사(PA) 통합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이번 통합 추진은 해운항만 산업의 본질적 특성을 무시하고, 국가 수출입 전초기지인 항만의 자율성을 압살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울산항 전경.

이어 “항만은 각 지역의 고유한 제조 기반 및 지역 사회의 생존과 맞물려 있는 독자적인 경제 생태계”라며 “국가물동량의 대다수를 처리하는 핵심 기반시설을 단일 조직으로 획일화하겠다는 발상은 글로벌 해운물류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구조적 마비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해외 선진 사례를 들며 독립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체들

은 “세계 주요국들 역시 개별 항만이 지닌 물류 경쟁력과 배후산업과의 긴밀한 연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항만별로 독자적인 항만공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항만이 고객에게 선택받는 기준은 거대 조직의 형태가 아니라 현장 중심의 서비스 수준과 비용 경쟁력, 생산성”이라고 지적했다.

재정적·행정적 측면에서의 실익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각 항만

공사는 이미 개별 항만의 확고한 물동량과 항만시설이용료, 임대 수입 등을 바탕으로 건전한 재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인위적인 통합으로 얻을 수 있는 단순 관리비 절감이나 행정 편의적 이득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통합에 따른 부작용은 심각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직 비대화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과 지역 갈등 조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개별 지역 조직이 본부 산하의 하부 지원 형태로 축소될 경우 지역 내 고용 규모가 직격탄을 맞고 현장 밀착형 행정 서비스도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울산항 9개 단체는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시도는 실리적 이득은 거의 없는 반면, 국가 균형 발전의 퇴행과 지역 산업 지원 기능 마비라는 치명적인 국익 손실을 야기하는 자멸적 정책”이라며 “정부는 독단적인 통합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개별 항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현행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구미시

오뚜기라면 2000억 투자 유치

구미시는 13일 시청 대강당에서 경북도, 오뚜기라면㈜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김장호 구미시장, 이신혁 오뚜기라면㈜ 대표이사, 경제단체 및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오뚜기라면(주)는 구미국가2산업단지 옥계2공단로 179-15 일원 옛 효성티앤에스 부지에 약 2000억원을 투자해 해외 수출 제품 생산공장을 신설하고, 2029년까지 12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구미(경북)=김진곤 기자

완도군

7억 투입해 양식어장 정화

완도군은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양식 어장 정화 사업’을 추진한다.

‘양식 어장 정화 사업’은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양식 활동으로 발생한 해양 침적 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7억원을 투입해 완도읍 장좌리, 대야1리, 군외면 달도리, 청산면 모동리 어촌계 양식 어장 632ha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어촌계 면허 유효기간, 양식 어장의 오염 심화 정도, 어장 재배치 여부, 주변 어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경주시

만남지원사업 첫 성혼 탄생

경주시가 만남지원사업을 통해 결혼에 이른 첫 성혼 커플에게 결혼축하금을 전달했다.

경주시는 13일 시장실에서 만남지원사업 첫 성혼 사례인 김진수 씨와 이혜진 씨 예비부부에게 경주페이 200만원을 전달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열린 만남지원사업을 통해 인연을 맺었으며 오는 9월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경주시는 올해부터 만남지원사업을 통해 결혼한 커플에게 1커플당 200만원 상당의 경주페이를 지원하고 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울산시

폭염·고열 실증시설 건립

울산시는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국 최초로 폭염과 고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실증 시설 건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울산테크노파크 등 4개 참여기관과 함께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을 조성한다. 사업기간은 올해 7월부터 오는 2028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32억원이다.

시설은 미포국가산업단지내 ‘울산국가산단 통합안전관리센터’에 조성된다.

/울산=이도식 기자

부산시, 中 시안서 대규모 관광 로드쇼 ‘영주365시장’ 디지털 마케팅 기반 강화

‘부산 브랜드 스토어 인 시안’ 2000여명 방문, B2B 상담도

부산관광공사가 중국 서북권 거점도시 시안(西安)에서 대규모 관광 로드쇼를 열고 내륙 시장 공략에 나섰다.

공사는 지난 10~11일 이틀간 시안의 초대형 복합 쇼핑몰 ‘조이시티(Joy City)’에서 ‘부산 브랜드 스토어 인(in) 시안’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안은 에어부산이 부산과 직항으로 연결하고 있는 중국 내륙 도시로, 중국에서 발전 잠재력이 큰 대도시를 가리키는 ‘신(新)1선 도시’로 분류된다.

행사의 부제는 ‘항항부산’. 중국 MZ 세대가 온라인에서 쓰는 표현으로 ‘지금 가장 뜨고 있는 부산’이라는 뜻이다. 주말 유동 인구가 약 10만 명에 이르는 조이시티에 부산의 바다와 랜드마크를 형상화한 팝업 스토어를 꾸려 이틀간 오픈

라인 방문객 2000여 명을 끌어모았다.

이와 함께 해양 체험, 뷰티 시연, 아로마 진단, 삼진어묵 시식, K팝 댄스 공연 등으로 구성했고, 샤오홍슈와 웨이보 등 현지 SNS 채널과 인플루언서 10명을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도 병행했다.

10일에는 별도로 B2B 상담회를 열어 에어부산, 씨트립, 유투어(U-TOUR) 등 현지 항공사와 여행사,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관계자 50여 명과 부산 관광업계가 교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운수권 배분을 통해 부산발 광저우·항저우·샤먼·구이린 등 중국 직항 노선을 대폭 늘렸다.

이정실 공사 사장은 “시안의 방한 수요와 부산 방문객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만큼 이번 로드쇼를 통해 중국 내륙 시장에 부산의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카카오 디지털 지원 사업 선정

영주365시장이 카카오의 디지털 지원 사업에 선정되며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낸다. 영주시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연계해 브랜드 가치와 고객 소통을 함께 높이며 관광형 전통시장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영주시와 영주365시장(선비골전통시장·골목시장) 상인회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과 연계해 카카오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단골 상권 디지털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 상인회의 디지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카카오 비즈니스 도구와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을 지원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고객 소통과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시장에는 디지털 전문강사의 맞춤



영주365시장은 디지털 마케팅 기반 강화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통해 관광형 전통시장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형 현장 교육과 카카오톡 채널 홍보 지원, 광고메시지 발송에 사용할 수 있는 300만 원 상당의 무상 캐시가 제공된다.

이번 성과는 지난 6월 경북지식재산센터의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 선정에 이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영주365시장은 공동브랜드 구축과 디지털 마케팅 기반 조성을 함께 추진하며 시장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경남도, 우수 브랜드 쌀 5개 선정

진주드림 참햇쌀 연호진미 ‘대상’

경상남도가 ‘2026년 경남 우수 브랜드 쌀’ 5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진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진주드림 참햇쌀 연호진미’ (사진)가 차지했다. 연호진미는 농촌진흥청이 2009년 육성한 ‘최고품질 벼’ 품종으로, 단백질 함량이 낮아 찰기와 식감이 뛰어난 경남 주력 품종이다.

최우수상은 거창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밥맛이 거창합니다’, 우수상은 ▲새고성농협쌀조합 ‘생명향결쌀’ ▲고성거제통영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소가야 옥천쌀’ ▲해미시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 ‘가아뜰’이 받았다.

평가는 품질 관리가 어려운 혼합미를



를 직접 구입해 외부 기관에 맡기는 4단계 검증 방식을 적용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완전립 비율 등 14개 항목 품위 평가, 품종검정 지정기관의 유전자 분석을 통한 혼입물 확인, 한국식품연구원의 단백질 함량 분석과 전문 패널 식미(食味) 평가를 거친 뒤 계약재배 판매 실적 등 브랜드 관리 실태까지 종합 심사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대구~경북 광역철도’ 예타 통과 총력

대구-경북 1시간 생활권 구축

경북도와 대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대구~경북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통과가 내달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대구~경북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재정투자평가 분과위원회 종합평가'가 진행됐다.

이 철도 사업은 2019년 대구와 경북의 공동 건의를 시작으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 이후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4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착수됐고 이날 종합평가를 받았다.

이 철도는 경부선(서대구역)~통합신공항~중앙선(의성역)을 연결하는 70.1km(신설 64.6km, 공용 5.5km)의 길이로 사업비는 2조485억원(예타신청 기준)이 들 예정이다.

대구와 경북 주요 도시를 환승 없이 연결해 대구 경북을 1시간 생활권으로 구축하고 2024년 말 개통한 대경선과 연결돼 구미를 비롯한 내륙 첨단산업의 가치사슬을 완성하는 국가균형발전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경북도와 대구시는 기대하고 있다.

대구 경북 6개 지자체장도 지난 2월 공동건의문에 서명하는 등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